현대 패션 액세서리에 나타난 키치(Kitsch) 특성

김수영 · 윤정아 · 이연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Kitsch Features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Accessories

Sooyoung Kim · Jeong-A Yoon · Younhee Lee⁺

Mast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Doctoral,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투고일: 2014. 5. 12, 심사(수정)일: 2014. 5. 27, 게재확정일: 2014. 7. 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various designs through renewing and changing perception of accessories by examining various and arbitrary Kitsch. For the method of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was mainly used for research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in Kitsch fashion. 798 pieces of work from fashion magazines and website with a focus on Milan, Paris, London and New York collections, in the decade of 2000-2010 were col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 of exaggeration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the visual exaggerat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psychological expression through excessive images and (2) the collecting exaggeration, which is not simple but a want of large quantities. Second, the characteristic of satire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1) the imitation-satire, which satirizes messages to societies with creative humor by using easily consumed materials and (2) the resistance-satire, which is destructive and offensive against isolation and desolation of a capitalistic society. Third, the characteristic of amusement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1) the playful-amusement, which raises a laugh slyly by using clever materials and (2) the childish-amusement, which involves childish imagination and humor-sense because of desire to be a child. Fourth, the characteristic of nostalgia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1) the romantic character expressing a departure from modern society, which is desolate because of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2) the intermediate character recreating an esthetic category by interacting with different and relative elements. Fifth, the characteristic of inappropriateness is expressed through a deliberate mistake, and it denies existing senses of beauty by overturning common sense and creating new senses of beauty, expressions in distortion and modification of stereotype.

Key words: amusement(유희성), exaggeration(과장성), inappropriateness(부적절성), nostalgia(향수성), kitsch accessory(키치 액세서리), satire(풍자성)

I. 서론

액세서리는 신체 일부분에 사용하는 장신구로 걸거나 매거나 늘어뜨리는 소품으로, 인간은 이러한 장식을 통하여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해 왔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다양하고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발전해 온 액세서리는 고대에는 그 자체만으로 장식의 의미를 부여하여 한 시대와 문화 양식을 나타내었지만, 현대에는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나타내어 패션과 함께 어떻게 코디네이트 되는가가 더욱 중요시되는 조형물로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대에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패션 소품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액세서리가 이제는 패션과 별개의 소품이 아니라 트렌드를 함께 공유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남들과 다른 개성으로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 유패하고 자유분방한 스타일의 키치가 현대인들에게도 중요한 패션 코드로 받아들지면서 의상 뿐 만 아니라 액세서리 디자인에 있어서도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빅뱅 권지용의 셔터셰이드 선글라스, 2NE1 씨엘의 레고 반지 등, 인기 연예인들이 키치 아이템을 활용한 강렬한 스타일링을 선보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양한 바닷가재 장식의 헤어 액세서리, 리본 장식 등을 착용하고 무대에 오르는 레이디 가가와 맥도널드 로고를 활용한 모스키노의 의상, 스펀지 밥 캐릭터를 응용한 원피스 등을 착용한 패션 피플들에게서는 국내에서보다 좀 더 대중화된 키치룩(Kitsch Look)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키치룩의 아이템들은 고급스럽거나 우아하지는 않지만 거부감 없이 가볍고 친근한 느낌으로 대중 속으로 점차 스며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스타일을 연출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패션 코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키치(Kitsch)가 과거 산만하고 저속했던 이미지에서 현대에는 어떠한 형태로 변형되어 표출되고 있는지 액세서리를 통해 그

조형적 특성을 분석, 정리해 봄으로써, 액세서리에 표현된 키치적 의미와 효과를 알아보고, 키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며 사고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감각의 액세서리 디자인 개발의 원천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키치 패션이나 헤어,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액세서리 전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미비한 상황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액세서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액세서리와 키치에 대한 고찰을 위해 국내·외 서적, 인터넷, 학술 논문 등을 참고하였고, 선행 연구를 통해 키치 패션의 조형적 특성의 분류기준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2000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밀라노, 파리, 런던, 뉴욕의 세계 4대 여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을 중심으로 퍼스트뷰코리아(www.firstviewkorea.com)의 웹사이트에 발표된 작품들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작품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의류학 분야의 전문가 포커스 그룹의 설문을 통하여 681점의 작품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II. 이론적 고찰

1. 액세서리

1) 액세서리의 개념

액세서리(Accessory)의 사전적 의미는 ‘부속품’, ‘보조품’, ‘장신구’이며, 패션 액세서리는 복식을 보다 아름답고 단정하게 하기 위하여, 신체의 일부분에 직접 쓰거나 걸거나 또는 끼는 장식품과, 의복의 장식을 위해 붙이거나 매거나 늘어뜨리는 소품을 지칭하며 그 외의 모든 장식 목적에 필요한 소구(小具)까지를 포함한다.¹⁾ 이러한 액세서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최초의 액세서리는 조개껍질이나 동물의 뼈 등으로 자신의 몸을 장식하고자 했던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주술적 의미, 신분의 구별, 아름다워지려는 인간의 미적 본능의 표현 등의 이유로 액세서리를 착용하였다. 인류 초기의 액세서리는

형태의 균형미나 표면을 장식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매우 단순하였지만, 사회가 발달해감에 따라 인간의 미의식이 강조되고 보석과 귀금속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부를 상징하고 신분을 나타내는 데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어 그 형태는 더욱 더 정교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변화되어 왔다.²⁾

현대에는 액세서리가 옷차림에 강조와 변화를 주고 전체적인 패션 이미지를 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다양한 스타일링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적절한 액세서리는 의도하고자 하는 이미지 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동일한 의복도 액세서리의 변화만으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고 패션을 더욱 매력적으로 표현, 완성시켜 준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의 변화와 함께 액세서리가 패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아이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IT 산업의 발달로 스마트폰이나 넷북, 아이패드와 같은 휴대용 전자제품을 꾸미는 액세서리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 액세서리의 범주와 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커지고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2) 액세서리의 분류

패션 액세서리는 모자, 헤어장식,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의 장신구, 가방, 신발, 벨트, 장갑, 양말 등을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장식되는 모자, 헤어장식,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모자(Millinery)는 1529년 이후 밀짚모자가 유행을 하였던 밀란(Milan)지방을 중심으로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용어로, 추위나 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거나 장식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기 위해 머리에 쓰는 것의 총칭이다. 모자는 머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추위나 더위 그리고 외상으로부터의 보호 등 실용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흉사(凶事)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주술성, 신체를 장식하고 싶은 심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장식성을 동기로 하고 있다. 또 전쟁 시에는 머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투구를 사용하게 되고, 평상시에는 신분을 상징하는 권위적 의미로 정착하게 된다.³⁾ 현대 복식의 일반적 모자 형태

는 주로 유럽의 서구문명에 유래되었으며 시대 및 문화적 상황에 따라 지역 및 국가별로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 모자의 기원은 중세 들어 단순한 두건과 후드에서 유래되었는데, 챙이 달린 모자의 형태는 그리스와 로마 등지에서 유래된 페타서스(petasis)로 턱밑에서 끈으로 묶는 여행자용 모자로 크라운이 낮고 챙이 넓은 형태로 시작되었다. 중세초기 여성들의 두건, 목가리개, 베일 등이 14세기까지 금줄 등 액세서리를 추가하면서 발전하였고, 18~19세기 유럽에서는 장식성에 치중된 화려함이 정점에 달했다.⁴⁾

헤어장식은 인류가 최초 액세서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구석기 시대에 머리에 조개의 작은 구슬을 붙이기도 하고 편을 꼰 것으로 발견되고 있다.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모자는 사용되지 않고 에이프론(epuron)형태의 헤드 드레스(head dress)가 남아있고 왕관 등이 오늘의 모자 역할을 하였는데 티아라(tiara), 미트라(mitra)가 대표적이다. 헤어장식으로 는 헤어밴드, 리본, 헤어 편 등이 있는데, 머리카락을 장식하는 액세서리로 예전에는 모자의 부속품처럼 여겨졌으나, 요즘에는 독립적으로도 충분한 패션성을 갖고 있어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⁵⁾ 인체의 가장 높은 부분인 머리에 피복하는 헤어장식은 다른 액세서리보다 독특한 개성을 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⁶⁾

목걸이는 목이나 앞가슴을 장식하는 줄이나 고리 모양으로 된 장신구로, 인류는 물체에 초자연적인 힘이 붙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신체를 장식하기 위하여 인체의 중요부분인 목 부분에 대하여 정성을 들여 꾸미었으며, 의복에 앞서 사용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그 사용 재료는 극히 우리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 돌, 맹수의 이빨, 조개껍질, 뼈 등으로부터 시작했고, 귀금속이나 보석류까지로 발전해 왔다.⁷⁾

귀걸이는 귓볼에 구멍을 뚫어 바퀴모양이나 막대 모양의 두 종류로 기초적 장신구를 귓볼에 관통하게 하거나, 걸쳐서 또는 다종다양하게 늘어뜨려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시시대에는 주술적 성격이 강하여 남녀가 모두 사용하였으며 점차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고대의 벽화에는 흔히 거대한 귀고리가 등장하며, 유물도 현존한다. 초기 그리스에서는

액막이의 뜻으로 남녀 모두 귀걸이를 하였는데, 비잔틴이나 중세 이후 베일을 쓰는 습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쇠퇴하였다. 근세에 들어서면서 다시 수공예적인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바로크 시대에는 남성도 귀걸이를 달았다. 18세기 말에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귀걸이가 등장하였고, 19세기 초에는 카메오를 걸들인 것, 브로치, 팔찌 등 세트로 된 것이 등장하였다. 모조품 귀걸이가 일반에게 보급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⁸⁾

팔찌(bracelet)는 팔을 의미하는 라틴어 braccium에서 나왔는데 손목, 팔에 등글게 두르는 장식용 밴드를 말한다. 그 종류로는 여러 개를 겹쳐 착용하는 좁고 단단한 형태의 벙글(bangle), 기념적인 혹은 상징적인 작은 아이템들이 달린 견고한 체인 고리 팔찌인 참(charm), 타원형으로 된 넓고 단단한 팔찌로 뒤쪽 오프닝으로 손목을 끼울 수 있는 커프(cuff), 체인 혹은 메달로 손등에서 연결된 반지와 팔찌의 콤팩트이션 형태의 슬레이브 링 팔찌 등이 있다.⁹⁾

2. 키치

1) 키치의 발생 및 개념

키치(Kitsch)의 사전적 의미는 “천박한 통속적인 작품, 천박하게 장식한 것” 또는 “예술상의 저속한 값싼 작품, 속악(俗惡) 저급한 것, 값싼 감상” 등으로 정의되어지며, 또한 다른 예술 사전에서는 “통속적이고 저속하고 값싸고 나쁜 취향으로서 쉬크(Chic)와는 대립되는 개념의 사물이나 이미지의 총칭”¹⁰⁾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키치라는 용어는 1860년 무렵으로, 독일 남부에서 ‘굵어모으다’, ‘아무렇게 주워 모으다’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던 말이며, 넓게는 ‘낡은 가구를 주워 모아 새로운 가구를 만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¹¹⁾ 이 용어는 1917년 이후 독일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베데킨트(Wedekind)가 “키치는 폭넓은 역사의 스타일이며, 근대적 시대정신의 구체적인 구현”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때부터 키치라는 용어는 예술적인 나쁜 취미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¹²⁾

키치의 어원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다. 루드비히 키츠(Ludwig Giesz)의 영어의 스케치(sketch)에서 유래했다는 설, 키첸(kitschen)이라는 독일어의 동사에서 나왔다는 설로 ‘진흙을 가지고 손으로 문지르며 논다’는 의미로 독일 남부에서 유래했다는 솔로몬(Solomon)의 주장, 또한 ‘아무렇게나 주워 모으다’, 또는 ‘낡은 것으로 새 가구를 만들다’를 의미한다는 아브라함 몰르((Abraham Moles)의 주장이 있다. 이 밖에도 ‘값싸게 만들어지다’의 의미인 독일어의 베르키첸(verkitschen), ‘견방지고 우쭐대는 것’을 의미하는 러시아어의 동사인 키체스야(keetchesya)에서 유래했다는 설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어원들을 통해 키치에 대한 용어의 기원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진품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부정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원의 유래로써 키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 의미보다는 가볍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키치를 부정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는 “참된 문화의 가치에는 무감각하면서도 특정한 문화만이 제공할 수 있는 오락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대중 문화가 곧 키치”라고 하였다.¹³⁾ 이것은 고급문화의 반대편에 키치를 자리잡게 함으로써 강한 대비로 인하여 고급문화의 우월성과 대중문화의 저급함을 동시에 증명하는 말로 키치는 창조적으로 문화를 생산하는 대신 베끼기와 모조품을 이용하여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문화적 표현의 의미이다.

이와는 대비적으로 키치를 현대의 문화 산물로 주시한 아브라함 몰르는 키치란 ‘구체적인 사물이라고도 할 수 없고 양식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인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운데 사물과 관계하며 보여주는 객관화된 형태일 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특수한 사회적 기능과 사물자체의 사용기능이 부과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지는데, 몰르는 사회적 삶과의 관계에서 키치를 이해하고자 함으로써 대상과 관계하는 인간심리의 심층적 부분까지 관심을 확대하였다. 몰르는 키치를 인간과 사물의 관계방식으로 규정하여 미적인 양식으로 중산계급의 발생과 함께 생겨난 새로운 미적 체계를 바탕

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인 예술로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미를 추구하는 고급예술과는 달리 일상생활의 영역 안에서 인간을 척도로 하는 생활예술의 소산으로 새로운 미적 가치를 갖는다¹⁴⁾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을 통해서 키치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과거 '고급문화를 모방하며 사물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여 천박한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위조된 저속한 대중적 취향'이라는 소극적, 부정적 의미로부터, '이러한 취향을 적극적, 긍정적으로 수행하며 산업사회의 소비문화를 수용하는 대중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철학적 미학적 범주'라는 광범위한 긍정적 의미까지 개념의 다양성과 평가의 이중성을 지닌다.¹⁵⁾

2) 키치 패션의 특성

문화의 하위체제인 키치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 의미와 표현이 변화함에 따라 당대를 상징하는 하위문화의 패션 디자인 형태로 변화해 왔다. 왜냐하면 패션 디자인은 순수예술보다 대중문화에 더 가깝고 청소년 하위문화 집단은 그들의 반항적이고 가치전복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키치를 사용하는 충격적인 전략을 도입했기 때문이다.¹⁶⁾

패션에서의 키치는 '고상하고 품위 있는 것에 반대, 격식에 대한 반대'이다. 자극적이면서 저속한 색채, 지나치게 산만한 장식, 싸구려 소재와 모조품 등 전근대적인 감각의 추구하고 간결한 세련미를 배격하는 것이 특징인 키치적 취향은 고급스러움보다는 천박함, 새것보다는 낡은 것, 세련됨보다는 촌스러움을 추구하며 심미적 균형미를 중시하는 종래의 순수 예술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다. 키치 패션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인 배경으로는 대중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성립으로 물질적 풍요와 번영이 가져다 준 산업혁명을 들 수 있다. 기계의 발명과 공업 생산으로 방직, 방직 기술이 향상되고 문화면에서도 대중사회가 성립됨에 따라 새로 등장한 부르주아 세력으로 이전사회와는 다른 패션디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⁷⁾

이러한 키치 패션은 195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여 키치 현상을 그들의 행동양식과 패션에 새롭고 충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하위문화로 나타난 비트(beat), 19세기 영국 왕조 에드워드풍 스타일을 모방한 테디 보이(teddy boy), 1950년대 말 하류층 노동자계층의 청소년으로부터 미술대학생들에게 영국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모즈(mods)패션에서 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60년대 팝 문화를 시작으로 히피, 펑크 등 다양한 패션에서 키치의 조형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기성문화에 대한 반항을 표현하는 저항문화로서 1960년대 이후 전위적 디자이너들에 의해 그들의 충격적인 스타일은 지배문화에 흡수되어 갔다.¹⁸⁾ 이러한 팝, 히피, 펑크,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은 저속하지만 경쾌하고, 과잉장식성 및 유희성을 가지며,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미숙한 느낌을 통하여 오히려 신선한 감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점과 미적 범주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키치적 특성을 보여주며, 오늘날까지 하이패션에 끊임 없는 호기심과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키치 현상과 키치 패션에 대한 유형 분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키치의 조형적 특징에 대해 아브라함 몰르¹⁹⁾는 부적절성, 누적, 공감각, 중용 혹은 범용의 4가지로 설명하였고, 김정숙²⁰⁾은 키치 패션의 미적 가치를 풍자성, 패락성, 향수성, 유희성으로 나누었으며, 김경옥²¹⁾은 키치 패션의 조형적 특징을 누적성, 부적절성, 낭만성, 패락성, 풍자성, 중층성으로 분류하였다. 박경화²²⁾는 키치 패션의 조형적 특징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초월적 노스텔지아, 자극적인 선정미, 통속적 풍자미, 작위적 일탈과 저항미, 흥취로운 유머로 설명하였으며, 이연주²³⁾는 장식과잉, 부적절성, 자기기만성, 유희성, 선정성, 중층성의 6가지로 그 조형적 특성을 분류하였다.<표 1>

Ⅲ. 현대 패션 액세서리에 나타난 키치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키치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과장성, 풍자성, 부적절성, 유희성, 향수성, 선정성으로 분류하여 사진자료를 수집, 분석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키치의 조형적 특성

특성	선행연구자	김정숙	서승미	박경화	공차숙	김 윤	곽지은	유정주	이은정	이언주	조경미	연구자 분류
과잉장식					○	○						과장성
자기과시 과시성								○	○			
과장성										○		
누적성											○	
모조품 활용 모조성			○		○					○		풍자성
풍자성 풍자미	○	○	○					○	○			
저항(미)			○			○						
대리만족								○	○			
유희(성) 유머	○	○	○			○	○	○		○	○	유희성
절충						○						향수성
중층성										○	○	
향수(성)	○						○	○	○			
낭만(성)						○			○		○	
노스텔지아				○								
회화성							○					
일탈(성)								○	○			부적절성
부적합 부조화성			○		○	○				○		
부적절성								○			○	선정성
에로티시즘					○				○			
퇴폐성							○					
선정성				○						○		
패락성	○	○										

하였으며, 분석 결과 패션액세서리에서 선정성을 나타낸 작품은 그 수가 너무나 미비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2000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밀라노, 파리, 런던, 뉴욕의 세계 4대 여성복 컬렉션에 수집된 최종 분석 자료 798점의 작품들 중 모자와 헤어 장신구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많이 나타난 키치적 표현 특성은 과장성과 유희성이 각 29%의 비율로 많이 나타났다.〈표 2〉

패션 액세서리 전반에 걸쳐 키치적인 디자인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디자이너는 Dior, Jean Paul Gautier, Alexander McQueen, John Galiano, 등이었고, 작품수도 Dior가 가장 많았다. 특히 모자가 많았는데 과장성과 향수성이 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풍자성이 짙은 액세서리에는 Comme des Garçon, Junya

Watanabe의 작품이 많았으며, 유희성이 강한 디자인에는 Jeremy Scott, Cheap & Chic by Moschino, JC De Castelbajac, Agatha Ruiz de la Prada의 작품이, 향수성이 나타나는 디자인에는 Alexander McQueen, Dior, Vivienne Westwood의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1. 과장성

축적의 원리는 수집열로 나타나고 시각적 집중 현상을 유도한다. '더 많이'라는 충동은 대중문화의 특징이 되었으며, 이는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끊임없는 소비를 통해 움직이는 현대 사회에서 소유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과시적 심리가 과도한 장식과 이미지로 만들어져 키치 형식으로 표

〈표 2〉 키치 특성에 따른 액세서리 빈도

분류	액세서리	빈도	합계
과장성	모자, 머리장식	87	229(29%)
	목걸이	92	
	귀걸이	16	
	팔찌	34	
풍자성	모자, 머리장식	76	136(17%)
	목걸이	54	
	귀걸이	3	
	팔찌	3	
유희성	모자, 머리장식	116	205(26%)
	목걸이	63	
	귀걸이	17	
	팔찌	9	
항수성	모자, 머리장식	86	145(18%)
	목걸이	43	
	귀걸이	2	
	팔찌	14	
부적절성	모자, 머리장식	68	83(10%)
	목걸이	13	
	귀걸이	0	
	팔찌	2	
합 계			798(100%)

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욕구는 미적 요소의 과도한 축적이나 사물에 대한 과잉정보의 제공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감각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공간감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백의 공간을 남기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것을 채워버리는 것이고, 가능한 모든 총체적인 아름다운 이미지 작용을 위해서는 모순된 힘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²⁴⁾

키치의 특성인 축적은 이미 있는 것, 다른 데서 가져온 것, 여분의 것을 끌어 모은 수집적 양상을 보여주며 대개 형식, 내용, 기능의 밀집을 통해 스스로를 눈에 띄게 만든다. 또한 과잉장식은 자본주의로 인한 대량생산 체계와 대중문화의 발달에 의해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무의미와 무료함을 벗어나 환상적인 유희를 경험하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²⁵⁾ 이러한 키치가 패션에 반영되면 단순하고 간결한 멋은 사라진다. 고상하고 품위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키치 패션은 싸구려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거나 자극적인 색채 과다사용, 패턴(pattern)의 무질서한 누적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²⁶⁾

액세서리에서의 과장성은 주로 압도적인 크기의 형태적 과장과 과도한 수집적 장식의 누적으로 나타나는데, 형태적 과장은 과시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또한 이러한 과시 욕구는 단순함을 거부하고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과잉장식으로 채워지는데, 지나치게 많은 장식은 오히려 산만함을 주고 품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형태적 과장의 모자, 머리장식으로 〈그림 1, 2〉²⁷⁾의 작품은 한눈에 보기에 그 과장된 크기를 느낄 수 있으며, Junya Watanabe의 머리장식은 기하학적인 의상의 프린트와의 조화가 어우러져 머리로 시선이 집중되고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Michiko Koshino

의 05 S/S 작품<그림 3>²⁸⁾은 마치 커다란 원반을 목에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00 F/W Alexander McQueen과 02 F/W Xuan Thu Nguyen의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4>²⁹⁾는 귀걸이가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크며, <그림 5>³⁰⁾는 독특한 디자인의 팔찌로 역시 형태적 과장이 나타나고 있다.

수집적 과장의 Alexander McQueen의 머리장식은 마치 나비들이 실제로 날라와 머리주변에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많은 나비장식으로 인해 산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그림 6>³¹⁾. Kenzo의 목걸이는 많은 우드장식과 비즈, 노끈 등을 자유롭게 엮고 묶어

다소 산만해 보이며<그림 7>³²⁾, Dolce & Gabbana의 목걸이 <그림 8>³³⁾은 일상적인 소재의 뺏지를 다채롭게 수집하여 서로 연결시켜 만든 작품으로 이러한 과잉 누적의 수집적 양상의 표현 방식은 목걸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반면, 귀걸이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Alexander McQueen의 귀걸이는 서로 다른 크기의 철사를 모아 점차적으로 커지게 배열한 예로<그림 9>³⁴⁾, 이러한 비슷한 디자인의 목걸이가 00년과 09년 F/W에 선보여지기도 했다. 팔찌는 팔 전체를 뒤덮을 만큼 과하게 착용되었을 때는 수집적 양상의 과장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주로 많이 볼 수 있었다<그림 10>³⁵⁾.

<그림 1> 02 F/W
Dior Junya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 10 S/S
Watanabe Michiko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 05 S/S
Koshino Dupre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4> 08 S/S
Santa Barbara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5> 06 F/W
Dior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6> 08 S/S
Alexander McQueen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7> 05 S/S
Kenzo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8> 03 F/W
Dolce & Gabbana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9〉 00 F/W
Alexander McQueen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10〉 05 F/W
John Rocha
- www.firstviewkorea.com

2. 풍자성

풍자성은 어떤 대상의 수용 과정에서 수용자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비평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을 날카로운 비판보다는 웃음으로 유도하는 건강함을 가진다.³⁶⁾ 키치는 주로 한 사회의 지배계층이 아닌 주변적 집단, 즉 하위 문화집단의 정체성의 표현으로 나타나며,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해 반기를 든 정치적, 사회적 풍자를 통해 반 전통성과 반 엘리트주의를 표방한 일탈의 미학, 즉 저항의 미학으로 나타난다. 지배문화의 황폐화와 도덕적 위선을 조롱하고 풍자해 온 키치패션은 역으로 지배문화에 의해 천박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현대패션은 키치라는 미적 특성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세속성과 인간소외라는 황폐화된 세계를 아이러니컬하게 풍자하게 된다.³⁷⁾

현대인의 상대적 빈곤함이나 불신감은 풍자된 사물의 소비를 통해 해소되고 변화와 개혁의 의미가 강한 풍자성은 키치적 표현에서 일탈, 저항, 모조품 활용 등의 특징을 보인다. 일탈문화의 생활양식은 현대에 이르러 변화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서 펍 패션, 히피 패션, 펑크 패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가시화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의해 낭만주의 시대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출발부터 주류 문화에 대항한 이탈리아의 성격

을 가진 키치성이 내포된다.³⁸⁾

일탈과 저항미는 기존의 가치체계와 미적 질서를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는데,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반영되며 괴기스럽거나 이질적인 오브제를 이용하여 암행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윤리적으로 부정한' 또는 '진품이 아닌' 모방적 키치 패션은 모조나 위조의 미적 허위의식, 고급품이 대량생산되어 값싼 대중취향의 상품으로 규칙, 전통, 모범 등 똑같은 잣대의 기준에서 해방되어 부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인간의 상대적 빈곤함, 사회의 불균형과 부조화를 해소시키며 이러한 풍자적 연출을 통해 해학을 느끼게끔 한다. 이탈,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는 키치의 모조품 활용은 싸구려이면서 유치하고 쉽게 소모될 수 있는 모양의 플라스틱, 비닐, 쇠붙이, 낡고 오래된 듯한 소재, 폐품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소비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상상력을 통한 유머로서 표현한다.

현대 패션 액세서리에 표현된 풍자는 모조품, 폐품 등을 이용한 모조성과 괴기스럽거나 어두운, 암행의 이미지를 나타낸 저항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저항과 풍자, 개혁의 의미가 부여된다.

키치적 모조성은 싸구려 느낌의 인조피혁이나 비닐 등은 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들이며, 쓸모없는 폐품이나 낡아빠진 골동품도 액세서리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원래 인조모피, 인조피혁, 비닐 등은 진품과 유사한 재질감을 통해 값싼 대리만족을 구하던 것이었으나 오늘날 패션현상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소재들이 주는 값싼 저속함을 즐기게 됨에 따라 새로운 멋을 표현하는 소재로서의 가치를 부여 받게 되었다.³⁹⁾ 찌그러진 알루미늄 캔, 폐품 등의 소비를 통해 오히려 현대인의 상대적 빈곤함이나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풍자적 태도가 나타난 작품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소재의 사용을 통해 신선한 충격을 준다. Comme des Garçons의 머리장식(그림 11)⁴⁰⁾은 신문지, 폐 종이 등을 찢어 만들었으며, 〈그림 12〉⁴¹⁾는 빈 콜라 캔을 사용한 것이다. 목걸이에서도 모자, 머리장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조품, 폐품 등을 활용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Jean

Paul Gautier의 목걸이 <그림 13>⁴²⁾은 알루미늄 캔 뚜껑을 모아 엮었고, 다 쓴 전구를 전선줄로 묶어 만든 목걸이도 나타났다<그림 14>⁴³⁾. 귀걸이와 팔찌에서는 키치적 풍자성이 나타난 디자인이 많지 않았는데, 싸구려 느낌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귀걸이와 팔찌가 있었다.

저항적 풍자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세속성과 인간 소외의 황폐함에 대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풍자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인 <그림 15>⁴⁴⁾도 역시 머리부터 얼굴까지를 무채색의 베일로 가리고 묶어 음산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그림 16>⁴⁵⁾은 마치 얼굴에 검정 비닐을 씌우고 마구 잡아 뜯은 뒤 못과 같은 날카로운 쇠를 머리와 얼굴에 박아 놓은 것처럼 보

여 비인간적이고 혐오스럽게 느껴진다. 목걸이에 쓰인 못, 면도칼, 송곳이 주는 거칠고 파괴적인 이미지는 괴기스럽고 섬뜩한 느낌의 메이크업, 의상과 함께 매치되어 저항적인 풍자성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17>⁴⁶⁾. 귀걸이는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고, 팔찌는 반항적인 이미지의 쇠장식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볼 수 있다<그림 18>⁴⁷⁾.

3. 유희성

철학과 미학 일반에서 정의하는 유희성은 해방과 자유의 감정, 유희 충동의 발산을 위해 반고전주의적 경향으로 나타나며,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그림 11> 01 S/S
Comme des Garçons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12> 04 F/W
John Galliano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13> 07 S/S
Jean Paul Gautier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14> 06 F/W
Antoni and Alison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15> 04 S/S
Jean Luc Amsler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16> 06 F/W
Junya Watanabe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17> 03 F/W
Heatherette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18> 07 S/S
D & G
- www.firstviewkorea.com

도입, 무지, 외설, 타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 쾌감, 우월감 등을 느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을 말한다.⁴⁸⁾ 유희성은 웃음을 자아내도록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보다 큰 기능 즉 인간과 사회의 잘못된 것 혹은 일된 부분들을 통찰, 비판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교정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기존 질서의 위선이나 횡포에 대해 공격하여 그것을 제거하며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인간은 놀이를 하는 존재이며 놀이는 삶의 어떤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놀이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존재한다. 인간의 놀이에는 이타이라는 도피의 심리가 내재하고, 그것은 현실의 세계가 너무 진지하고 심각한 데서 오는 인간적인 반작용⁴⁹⁾이라는 점이다. 놀이의 본래적 의미인 정상에서 벗어남과 속아주는 행식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인간과 사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기도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키치가 함축되어 있으며,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유희가 바로 키치로 어른의 해방감을 해소하는 키치 패션을 쾌락적 요소도 함께 내재시켜 가시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에서의 유희성은 전통적인 미적 규범이나 기능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유머와 개성을 통한 파격적인 미적 표현으로 유희적인 단순성을 자유로운 감각으로 표현한다. 균형과 조화의 세련된 아름다움보다는 가볍고 즐거운 유희적인 감정들이 서로 혼합되어 익살스런 파괴와 새로움을 창조하는 유희적 특성으로 전개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간의 미적 감정을 표현하고 특히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융합시키는 표현기법으로 나타나게 된다.⁵⁰⁾ 산만한 장식을 통해 품위 없는 옷차림과 싸구려 액세서리 등의 장식으로 유아적이고 원시적인 순수성과 무질서, 팝 아트(Pop Art)적인 유머와 비진지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유희성은 기성세대의 고정된 감성으로 볼 때 놀람과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패션 경향으로, 이러한 흥미 위주의 디자인은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복식에서의 재치감과 극적인 느낌을 가지게 한다.

현대 패션 액세서리에 나타난 유희성은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유머적 표현과 순수하면서도 유치한 유

아적 표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기발한 착상이나 놀라움이 내포되어 있을 때 유머러스한 유희 효과가 나타나며 유희의 이러한 현실 이탈 방법은 일종의 경쾌함, 즉 현실 세계가 지닌 무게를 벗어난 세계를 제공한다. 또한, 상식을 벗어난 엉뚱한 아이디어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아이템이나 장식들, 이로 인해 과장된 모습들은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버린 변종들로서 키치가 된다. 비정상적인 이러한 모습은 키치 현상의 한 단면으로서 키치 패션이 되며, 이는 재미로 접근한 신선하고 흥취로운 쾌감을 선사하는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나타난다.⁵¹⁾

이러한 유머적 유희의 키치 특성은 모자에서 손이나와 담배를 쥐고 있는 형태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인한 우스꽝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19)⁵²⁾. 〈그림 20〉⁵³⁾은 맨홀 뚜껑을 모자처럼 쓰고 몸에는 검은 칠을 문혀 마치 맨홀 속으로 빠졌다가 올라온 듯한 상상을 유발시켜 웃음을 자아낸다. 목걸이에서 나타나는 유희성은 먼저, 익살스러운 파괴로 새로움을 창조한 디자인에서 볼 수 있다. 엉뚱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유희적 표현으로 레몬, 소시지 등의 음식을 귀걸이의 소재로 사용, 주렁주렁 연결하여 만든 목걸이도 있었다(그림 21)⁵⁴⁾. 〈그림 22〉⁵⁵⁾는 마치 도너츠를 양 손에 끼운 것처럼 장난스러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느껴지는 신선한 재미들이 바로 키치적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적 유희는 현실세계로부터의 이탈 심리를 내재하고 유아로 남고자 하는 심리는 유치한 키치적 태도로 나타나 유아적 상상력과 유머감각을 갖게 한다. 또한 동화적인 세계의 순수성을 갈망하는 표현으로 즐겁고 귀여운 달콤한 셰이드로서의 키치가 되기도 한다. Vivienne Westwood는 종이 왕관 형태의 머리 장식으로 그녀의 시그니처를 나타내었으며(그림 23)⁵⁶⁾, 만화 캐릭터를 모자로 만든 작품(그림 24)⁵⁷⁾과 아이들 장난감인 레고로 장난스럽게 만들어진 작품 등이 있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마치 어린 세계의 경직되고 긴장된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가슴 설레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도시의 일상생활에서의 도피하고 싶은 욕구, 사회적 해방의 감정을 표

현하기도 하는 것이다. 목걸이에서도 유아적인 디자인을 통해 느껴지는 유머러스한 작품들이 보여졌는데, 원색의 컬러풀한 색상과 과장된 털 소재가 또 다른 액세서리인 썸글라스, 장갑과 어울려 일상의 단조로움이나 권태를 기분 전환 시키려는 듯 밝고 경쾌하고<그림 25>⁵⁸⁾, Emma Bell의 목걸이 <그림 26>⁵⁹⁾은 장난감 돼지 얼굴들을 동그랗게 연결한 것이 유치하면서도 재미있다.

4. 향수성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환경파괴와 인간성 상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

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도시인은 막연한 향수가 내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도시화 이면에 가려진 이국적이고 전원적인 삶에 대한 동경이 있다. 이러한 목가적인 자연과 전원적인 삶, 이국적 풍경에 대한 동경으로 자연주의, 토속성을 나타내는 민속풍 등의 낭만주의적 정서가 생겨났다. 좋았던 옛 시절의 향수를 자극해서 옛날 물건을 수집하고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달픈 현실에서 탈피하여 행복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현대인의 소망이 담긴 것으로,⁶⁰⁾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액세서리를 통하여 많이 표현되고 있다.

낭만성(Romantic)이란 일상의 생활로부터 어떤

<그림 19> 01 S/S
Seredin & Vassiliev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0> 08 S/S
Jeremy Scott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1> 09 S/S
Bernard Willhelm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2> 06 F/W
Jeremy Scott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3> 10 F/W
Vivienne Westwood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4> 09 F/W
J.C. De Castelbajac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5> 08 F/W
J.C. De Castelbajac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6> 09 F/W
Emma Bell
- www.firstviewkorea.com

특별한 체험을 위해 사회문화와 함께 변화를 추구하는 이탈 과정으로써 그 자체로서 의미있는 행위이다.⁶¹⁾ 즉 다른 것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자유스러움 속에서 기쁨을 포함한 하나의 즐거움을 곧 낭만으로 보았으며, 축제나 종교, 모든 예술분야와 연관되어 있다.⁶²⁾ 이 과정에서 키치가 제공하는 직접적이며, 유한한 환상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과 상실이 가져오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시간과 공간의 인과성 등을 대담하게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상상력의 결과를 무의식의 내부적 감각에 의해 구성된 정서의 대치이다.

이러한 낭만주의는 지성, 이성에 대한 반감으로 일상적 지식의 감각적인 역사 위에 무엇인가 활력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도달하는 것으로, 끝없는 시도로 현실을 도피해 나가는데 궁극적으로 과거의 회귀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⁶³⁾ 과거회귀의 키치적 특성은 복고주의나 이국취향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서 낭만성이라고 하는 국적 불명과 시간 초월의 이국적, 초시간적 키치가 범람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낭만주의적 정서는 히피 패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주의, 복고주의, 대중주의를 포함한 토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술의 분야에서 레트로 개념은 하나의 창조를 이루는 과정으로 과거에 유행되어 대중들에게 익숙한 선행 양식 즉 과거양식을 '모방'하되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의 변화를 이루는 '패러디' 과정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표현성을 갖는 현재의 '유행' 스타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⁶⁴⁾

중층성은 절충 즉, 다양한 문화적 범주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질적이고 상대적인 여러 요소들의 상호적인 차용을 통해 새로운 미적 범주로 재탄생 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대성의 수용, 여러 민속적 요소 또는 과거 복식과 현대 복식의 혼용 등을 통해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패션에서는 여러 요소가 동시에 결합된 형태, 시간적 중층성과 공간적 중층성을 모두 포함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히피 패션에서 보여지는 여러 민속의 요소가 혼합된 절충주의적인 스타일이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 등에서 사용되는 과거의 역사적 복식과 현재의 복식의 공존하는, 혹은 여러

시대의 복식이 동시에 사용되는 예에서 중층성이 나타난다.

패션 액세서리에서의 향수성은 자연과 전원적 삶을 동경하는 낭만성과 과거와 현재의 공존, 타문화의 수용 등이 나타나는 중층성으로 나누어진다. 낭만적 키치는 인간사회의 건조함에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낭만을 연출하며 전원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 표현의 자연 이미지가 주로 나타난다. 자연소재로는 꽃이 가장 많았고, 새, 깃털, 나뭇가지, 조개껍질 등이 사용되었다.

꽃을 이용한 머리 장식<그림 27>⁶⁵⁾은 순백의 컬러감이 더해져 삭막한 현대사회로부터 이탈하여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느끼게 해준다. 새의 등지를 모자처럼 머리에 얹고 새의 날개부분을 장식처럼 디자인한 모자<그림 28>⁶⁶⁾는 꾸미지 않은 자연이 느껴져 전원생활에의 동경을 표현한 듯하다. <그림 29>⁶⁷⁾는 커다란 꽃 장식을 목에 묶어 시선을 끌었으며, 목걸이 <그림 30>⁶⁸⁾은 나뭇가지를 주워 엮은 듯한 목걸이와 팔찌로 내추럴하다.

비서구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복고주의의 영향으로 아프리카와 인디언, 동양권 문화를 동경하는 이국적 양상을 볼 수 있고, 과거 양식을 '모방'하여 현대에 맞게 변형시켜 과거에 대한 향수적 감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모자는 과거의 아이টে를 모방하지만 현대적인 드레스와 매치되어 새롭게 재창조된 작품으로 <그림 31>⁶⁹⁾은 나폴레옹 모자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의 차용으로, 앞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의 복식, 액세서리가 공존하는 절충으로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준다. <그림 32>⁷⁰⁾는 아프리카 부족사회의 고유성과 전통성이 느껴지는 컬러와 문양을 이용한 현대적 디자인의 모자이다. 목걸이 <그림 33>⁷¹⁾은 과거 역사 속에서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었던 목걸이가 그대로 재현된 듯 보이며, <그림 34>⁷²⁾는 목걸이의 컬러와 분위기에서 아프리카 부족 또는 원시사회에서 착용했을 법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5. 부정적절성

사람들은 특정한 기호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세세한 분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보여지는

〈그림 27〉 02 S/S
Valentino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8〉 06 F/W
Alexander McQueen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29〉 07 F/W
D & G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0〉 09 F/W
On Aura Tout Vu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1〉 04 S/S
Georges Hobeika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2〉 04 S/S
Jean Paul Gautier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3〉 09 F/W
Givenchy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4〉 04 S/S
Jean Paul Gautier
- www.firstviewkorea.com

모습만으로 사물을 평가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키치적인 제품은 여러 목적에 동시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지며, 목표로부터 약간 벗어난 느낌을 겨냥한다. 이는 본래 가지고 있는 목적 뿐 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형태나 사이즈, 내용 등이 부적절하게 결합, 왜곡되어 표현되는 형태를 말한다.⁷³⁾ 이러한 키치의 부적절성은 재료나 형태, 크기 등의 형식적 특질이 부적합한 단일대상 등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미적 대상의 결합이나 배열에 관련해서도 나타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절대 키치적이지 않은 대상들도 그 결합이나 배열과 관련해서 키치의 효과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⁷⁴⁾

키치 패션에서는 미적 부적절성을 통한 새로운 미

적 감각을 찾아내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통적인 패턴 형태를 버리고 새로운 의복형태를 추구하여 기존의 미적 감각을 부정하는 형태로 존재하며, 착용법, 배열의 부적합함, 부조화, 무절제, 무질서, 물형식 등으로 표현된다. 히피패션에서 나타나는 기존의 착장법을 무시한 복장, 적당하지 않은 조합과 계절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의복 등이 이러한 부적절성을 보여주는 예이다.⁷⁵⁾

본래 가지고 있는 목적에 맞지 않는 아이템을 이용한 사례의 가방(그림 35)⁷⁶⁾은 부적절한 용도의 사용을 통해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재미까지도 제공한다. 〈그림 36〉⁷⁷⁾의 모자는 용도가 맞지 않는 가방 형태의 모자와 드레스의 부조화를 나타내는 작품으

〈표 3〉 현대 패션 액세서리에 나타난 키치 표현 특성

조형성		표현특성	사 례		
과 장 성	형태적 과장	과시적 심리가 반영된 과도한 이미지 형성.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강렬한 인상을 남김.
	수집적 과장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수집적 양상의 과잉장식. 지나친 장식은 오히려 산만하며, 품위를 떨어뜨리기도 함.
풍 자 성	모조성	부의 불균형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 사회불균형을 풍자된 사물의 소비를 통해 해소. 소재 - 플라스틱, 비닐, 폐품류 (알루미늄캔, 쓰레기봉지, 신문지)
	저항적 풍자	자본주의 사회의 세속성과 인간 소외의 황폐함에 대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반영. 괴기스럽거나 이질적인 오브제를 이용하고 검정색이 많이 쓰임.
유 회 성	장난스러운 유머	기발한 상상력으로 탄생한 엉뚱한 아이디어의 아이템, 장식들이 많음. 주변 소재를 이용하여 장난스러운 의도로 재미와 웃음 유발
	유아적 유희	동물, 인형, 만화 캐릭터 또는 유아들이 좋아하는 풍선, 레고, 색종이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음. 원색의 컬러풀한 색상의 사용이 두드러짐.
향 수 성	낭만성	삭막한 현대 사회로부터 일탈하여 낭만을 즐길 여유를 느끼게 해줌. 자연 이미지 중 꽃이 가장 많이 쓰였고, 새, 나뭇가지, 조개 껍질 등이 내추럴한 감각으로 사용됨.
	중층성	이질적인 요소들의 상호적인 차용을 통해 새로운 미적 범주 재탄생. 과거의 액세서리와 현재의 복식이 공존하는 절충된 디자인, 여러 민속적 요소의 혼합스타일이 많음
부 적 절 성		보편적 미의 규범을 부정하는 형태로 고정관념을 깬 변형. 왜곡된 표현이 많음. 용도나 사용목적이 맞지 않은 기능적 부적절성이 가장 많이 나타남.

〈그림 35〉 09 F/W
Isaac Miarahe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6〉 02 F/W
Angelo Figus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7〉 05 F/W
Ferad
- www.firstviewkorea.com

〈그림 38〉 07 F/W
Vivienne Westwood
- www.firstviewkorea.com

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는 이미지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스케이프 날(그림 37)⁷⁸⁾을 소재로 사용한 작품들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은 어색함이 느껴진다. 팔찌에서는 장갑을 팔찌처럼 묶은 작품이 있었다(그림 38)⁷⁹⁾. 현대 패션 액세서리에 나타난 키치의 표현특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IV. 결론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키치적 액세서리의 표현 특성을 분석하여 패션 액세서리 디자인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장성은 과시적 심리가 반영되어 과도한 이미지를 형성한 형태적 과장성과 단순함을 거부하고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수집적 과장성으로 나뉜다. 둘째, 풍자성은 쉽게 소모될 수 있는 소재 등을 사용하여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상상력을 통한 유머로서 풍자하는 모조성과 자본주의 사회의 세속성과 인간소외의 황폐함에 대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주로 나타나는 저항적 풍자로 나뉜다. 셋째, 유희성은 엉뚱한 상상력으로 탄생한 상식을 벗어난 아이디어의 아이টে이나 장식들이 많은 장난스러운 유머와 유아로 남고자 하는 심리가 유지한 키치적 태도로 나타나 유아적 상상력과 유머감각을 갖

게 하는 유아적 유희는 원색의 컬러풀한 색상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넷째, 향수성은 도시화의 발달로 삭막해진 현대 사회로부터의 일탈, 자연과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 낭만성과 이질적이고 상대적인 여러 요소들이 상호적인 차용을 통해 새로운 미적 범주로 재탄생 되는 중층성으로 나누어졌다. 다섯째, 의도적인 오류로 나타나는 부적절성은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음으로써 기존의 미적 감각을 부정하는 형태로 존재하며 고정관념을 깬 변형, 왜곡된 표현이 많고 새로운 형태의 미를 창조한다.

이상으로 현대 컬렉션에 나타나는 키치 액세서리에 관하여 고찰해보았다. 절대적인 미적 가치가 사라지고 개성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키치적 패션은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디어 집약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특히, 토탈 코디네이션 개념으로 중요해진 액세서리 트렌드에 새로운 감각으로 접목된 키치 이미지는 미적 범주의 가능성을 넓히고,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 1) 최준자 (1992), *장신구의 세계*, 서울: 도서출판 예경, p. 31.
- 2) 김영인 외 (2001), *현대패션과 액세서리 디자인*, 서울: 교문사, p. 5.
- 3) *동아세계백과사전 12* (1982), 서울: 동아출판사, p. 18.

- 4) 송신영 (2003), 연꽃무늬를 이용한 모자디자인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3.
- 5) 김영인 외, *op. cit.*, p. 164.
- 6) 정해선 (2005), 모자와 패션이미지의 트렌드 분석과 조형성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 7) 임옥수 (2000), 복식에서의 장신구 역할 및 미적 기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논총*, 3(2), p. 203.
- 8) 김영인 외, *op. cit.*, p. 178.
- 9) Celia Stall-Meadows (2008), *패션 액세서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pp. 360-361.
- 10) *Dictionary of Art & Artist* (1998), New York: The Random House, p. 284.
- 11) Abraham Moles (1998), *키치란 무엇인가?*, 엄광현 역, 서울: 시각과 언어, p. 9.
- 12) Matei Calinescu (1994),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옥 외 역, 서울: 시각과 언어, pp. 291-292.
- 13) 오창섭 (2002), *디자인과 키치*, 서울: 시지락, p. 108.
- 14) Abraham Moles, *op. cit.*, p. 36.
- 15) 김경옥 (1998), 현대 패션에 표현된 키치(Kitsch)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
- 16) 김도영 (2001), 키치가 현대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8.
- 17) 박지은 (2004), *op. cit.*, p. 10.
- 18) 김혜정 (1995), 현대 패션에 나타난 키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3.
- 19) Abraham Moles, *op. cit.*, pp. 83-90.
- 20) 김정숙 (1996), 키치(Kitsch)패션의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김경옥 (1998), 현대패션에 표현된 키치(Kitsch)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박경화 (2003), 키치패션의 조형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이언주 (2008), 키치(Kitsch)의 미적 특성을 응용한 패션 스타일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김경옥 (1998), *op. cit.*, pp. 14-15.
- 25) 김도영 (2001), *op. cit.*, p. 55.
- 26) 김혜정 (1995), *op. cit.*, p. 54.
- 27) 자료검색일 2011. 4. 10,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28) 자료검색일 2011. 4. 10,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29)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30) 자료검색일 2011. 4. 10,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31) 자료검색일 2011. 4. 10,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32)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33) 자료검색일 2011. 4. 10,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34)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35) 자료검색일 2011. 4. 10,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36) 이은정 (2004), 현대 헤어디자인에 표현된 키치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2.
- 37) Wilson, Elizabeth (1985),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p. 14.
- 38) 이은정 (2004), *op. cit.*, p. 64.
- 39) 김혜정 (1996), *op. cit.*, p. 62.
- 40) 자료검색일 2011. 4. 12,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41) 자료검색일 2011. 4. 10,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42) 자료검색일 2011. 4. 12,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43) 자료검색일 2011. 4. 12,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44) 자료검색일 2011. 4. 12,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45) 자료검색일 2011. 4. 12,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46) 자료검색일 2011. 4. 10,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47) 자료검색일 2011. 4. 10,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48) 하지수 (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권, pp. 75-76.
- 49) 오창섭 (1996), 키치 현상을 통해 본 제품의 문화적, 사회적 기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1.
- 50) 서승미 (1999), 현대 키치 이미지 패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1) 박경화 (2003), *op. cit.*, pp. 93-94.
- 52)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53)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54)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55)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56)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57)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58)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59)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60) 강주아 (2003), 21세기 헤어스타일 양상에 나타난 키치 특성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3.
- 61) D. W. 하딩 (1967), The Nation of escape in fiction and Entertainment, *Oxford Review*, 4, p. 32.

- 62) 임경순 (1999), 현대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35.
- 63) 김경옥 (1998), *op. cit.*, p. 19.
- 64) 양진희 (2002),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1990년대에 나타난 1950, 1960년대 스타일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8.
- 65)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66)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67)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68)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69)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70)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71)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72)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73) 김경옥 (1998), *op. cit.*, p. 26.
- 74) Matei Calinescu, *op. cit.*, p. 293.
- 75) 김경옥 (1998), *op. cit.*, p. 69.
- 76)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77)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78)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79)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